

쫘리쫘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딸들의 웃음이 예뻐 때문 사진으로 올립니다. 근래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왔네요. (자화자찬 ㅋㅋ)



아침제조 시간. 발에 굽스한 라도는 앉아있음.



교복을 말려주는 벌과 바람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1

새벽에 한시간 성경을 읽고 낭독하는데, 돌아가면서 읽고 있지요. 가급적이면 발음이 분명하고 목소리가 큰 아이들을 낭독자로 시킵니다. 음... 평소에 그렇게 잘 도와주고 상냥하고 문제가 없는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눈길이 잘 안가는 아이가 있었지요. 알아서 잘 하니가요. 그런데 어느날 뽀루통 해지더니 어느날부터는 저를 슬슬 찌합니다. 도대체 재가 왜 그럴까 계속 고민하던 중에 성경낭독을 안 시켜서 그렇다는 생각을 확 주십니다. 맞네요. 개는 목소리가 작고 발음도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리지 않아서, 계속 낭독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제가 계속 배제했었죠.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나도 사랑해 달라'는 요구를 보게 됐죠. 말하지 않는데 알아 들어야 하니, 아비 노릇이 참 쉽지 않습니다. 미안타, 이 녀석아~

2

교육에 도움이 되는 놀이, 뭐 없을까 찾다가 루빅스 큐브로 정했습니다. 몇번 맞추는 걸 보여줬더니 애들이 모이더군요. 사서 나눠 줬습니다. 그리고 두 주 후에 큐브 맞추기 대회를 할테니까 두주동안 잘들 연구해봐라 했더니, 유튜브에서 좀 찾아 보는가 싶었는데, 다른 데로 빠지기 일쑤라, 결국 직접 가르치게 됐네요. 일주일 지나서 큰 애들 중에 서너명이 마스터 했는데, 어느날 막내 둘이서 맞췄다고 들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맞춘 걸 들고 왔겠거니 하고, 꿀밤을 찌서 큐브 섞어 돌려 보냈습니다. 이게 막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한시간 정도 후에 또 둘이 맞춰 갖고 왔더군요.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들이 했다는 겁니다. 너무 기특해서 '내 앞에서 다시 해봐라' 했더니, 아나나 다를까, 억지로



뜯어 빼더니 색깔 맞는 곳에 끼워 조립합니다. 그 것도 한꺼번에 다 분해하면 조립이 어려우니까 조금씩 뜯어서 조립합니다. 자기들 손으로 하긴 했네요. ㅋㅋ... 일일이 눈으로 손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이곳은 캄보디아입니다.



큐브 맞추는 척하는 홍과 테잇 (사진 위)
큐브 조립하는 막내들. 그럼 그렇지. ㅋㅋ(사진 왼쪽)

3

강시골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골이라 이곳 아이들은 문화생활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영화를 한 편씩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걸 못 할 때도 가끔 생깁니다. 그리고 어쩐다 월요일에 프놈펜에 일 보러 가면, 돌아올 때는 저녁 예매 시간에 데려고 좀 급히 오게 되지요. 트레픽에 따라 2 시간에서 2 시간 30 분 정도 걸립니다. (편도) 가까스로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 하루동안 좀 다친 녀석들은 다친 상처들 들이대고, 소독하고 약 발라주는 와중에,

몇몇 애들은 어제 영화 안 보여 줬으니까 오늘 영화 보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면 '아... 나는 예배시간에 대느라고 급히 왔는데, 애들은 예배에 마음이 전혀 없구나' 하는 생각에 실망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거 보려고 일주일 기다리는 애들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다른 곳에 가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까? 으휴... 그래 영화나 보라. 하고 틀어주려는데 프로젝터가 말을 안 듣습니다. 기계는 계속 말을 안 듣고, 몇 번 다시 시도하는 중에, '이렇게 영화나 틀어주려고 내가 급히 왔나? 내 모습이 백성에게 떠 밀려서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 같구나' 하는 생각이 펴뜩 듭니다. 그리고 프로젝터도 계속 말을 안 들으니 그걸 핑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다보니 애들이 예배에 또 잘 집중합니다. 리더는 참 외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다는 무리를 이끌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야 하네요. 짧은 한마디로 저를 깨우치시는 성령님이 참된 리더이십니다.

4



스텝 중의 한명(스케이벨)이 모친 상을 당해서 다녀왔습니다. 몇 일 전에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하더니 여기 저기 병원을 그간 다니시던 중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가셨네요. 이 딸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캄보디아도 부조를 얼마 해야 하는 건가 싶어서 선배 선교사님들께 물어보니 액수보다 기록을 잘 남겨 놓아야 한다고 조언을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여러번 돌아가신다니요. ㅋㅋ

5

쏘옴 아티탄 짜어뎨이 크니어 សូមអង្គុំស្នាមជាំធុយង្គា ៗ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일주일의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하는데 씁니다. 노트를 작성하고, 이 동네 정서에 맞게 번역하고, ppt 를 만들고...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무겁고, 그러나 거룩한, 할 일입니다. 매 주일의 설교가, 듣는 이들의 심령에 영원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꽃는 설교 되게 하소서.
-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원칙을 지키되, 조금 더 필요한 아이들은, 더 사랑해 줄 수 있게 하소서. 귀도 열려야 하고, 입도 열려야 합니다. 선교사나 여기 애들이나 서로 얼마나 눈치가 늘었는지... 적하면 아는 사이가 되고 있긴 한데, 꼭 필요한 말만 하는 단계를 넘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업그레이트가 있게 하소서.

캄보디아 감뽕잠 고아원에서
 존경과 사랑으로
 정종찬(성실, 하준, 민준, 하임) 선교사 드림